



7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p>01. 김활란의 성장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포와 기독교 • 이화학당 입학 • 이화학당 대학과 <p>02. 김활란의 여성계몽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YWCA 연합회 • 미국 유학 후 김활란의 활동 • 농촌계몽운동과 두번째 미국 유학 <p>03. 김활란의 일제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 김활란의 변명 <p>04. 김활란과 여성 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 • 국회의원 선거와 낙선 • 김활란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p>05. 고허경의 성장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허경의 학창시절 • 일본 유학시절 • 미국 유학시절 <p>06. 고허경의 사회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자매원 설립 • 영아관과 가정료 설립 • 고허경의 친일 협력 <p>07. 고허경의 정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재건과 국가재건 • 부녀국 초대 국장 •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p>08. 고허경의 신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어머니회 • 서울여자대학교 설립
-------------	---	---

7주차 |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허경




6차시


고황경의 사회사업

7주차 | 학습목표

6차시. 고허경의 사회사업



학습목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자매원을 비롯해 해방 전 고허경의 사회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고허경의 일제 말기 친일 협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자매원 설립 ■ 영아관과 가정료 설립 ■ 고허경의 친일 협력



경성자매원 설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고봉경-고황경 자매

- 1937년 10월
 - 경성자매원 설립
 -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의 배움터
 - “수양 지식, 살림법을 가르쳐 개인의 행복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성과 소녀를 돕는 것”



고봉경-고황경 자매

《삼천리》 1941. 1.

[출처01] 《조광》 1938년 1월, 56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의 취지

- 조선 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긴요한 도덕의 함양, 지식의 획득, 취미의 향상을 도모하여 상조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각각의 행복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



경성자매원

[출처02] 《조광》 1938년 1월, 58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 사업 내용

- 영아부와 소녀부
- 자매학원
- 경로부
- 시료부
- 임신상의부
- 인사상담부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 사업 내용

- 영아부
 - 생후 1세부터 4세까지 유아동
- 소녀부
 - 15세 이상 20세 미만 소녀 대상 위생과 요리, 재봉 교육



영아부와 소녀부

[출처03] 《조선일보》 1939년 6월 8일자 4면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 사업 내용

- 자매학원
 - 집안 형편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7세에서 14세까지 여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어머니 모임
 - 15세부터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위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
 - 한글, 기초 산술, 무료 진료 및 건강 상담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 사업 내용

- 경로부
 - 60세 이상 여성 대상 오락 프로그램
- 시료부
 - 가난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무료 의료 프로그램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 사업 내용

- 임신상의부
 -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찰과 상담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의 사업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고헌경, 고훈경 두 자매가 동심 협력하여 경성자매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금년 7월 2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이것은 전연 세국민의 부녀자를 위한 것으로서 그 부문을 영아, 소녀, 자매학원, 경로, 시료, 인사상담, 상분간호, 임신상의 7부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의 사업

- 이것은 그 각부의 명칭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무산부녀자의 교양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만치 차등의 사회사업에 착안하여, 현실적 노력을 하고 있는 고씨 두 자매의 열성에 대하여는 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사업으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고 못하는 책임은 전연 사회인사에게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의 사업

- 많이 성원하여 경성자매원으로 하여금 사회사업 기관의 한 모범이 되도록 성장 발달케 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37. 10. 29.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의 사업

-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자매원의 경비는 연 300원 가량으로 정하고 그것을 고헌경 고헌경 두 자매가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지탱한다고 하나 이만한 사업의 경비로 연 300원이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는 두 여성의 힘 만으로써는 언제까지던지 그것을 책임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고로 사회인사는 아무쪼록 독지를 분발하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아관과 가정료 설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경성자매원에 닥친 위기

- 1942년 5월
 - 경성자매원 영아관 설립
 - ‘모성애의 제도화’로서의 사회사업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 고향경, ‘아동보호시설확충의 제창’
 - “지금 당장은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춘추》, 1941. 7, 197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 1943년, 가정료(家庭療) 설립
 - 소녀감화원
 -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시설에 대한 신념
 - 19세 미만으로 소년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보호자가 없는 소녀 수용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6차시 고헌경의 사회사업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 가정료에 수용된 소녀들의 교육
 - 한글과 일본어, 성경
 - 재봉과 자수 등 직업기술교육



고향경의 친일 협력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전시체제기 고향경의 글

-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그 높은 곳에 다다르려고 올라가는 사다리층계이다. 생활개선의 목표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다. (.....)”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조선부인문제연구회 활동

- 1937년에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위해 조직한 친일 여성단체
- 생활 개선, 부인 수양 등을 연구·토의·실천·계몽 사업
-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 기본양식’ 제정(1938)
 - 매월 1일 가정에서의 황거요배(皇居遙拜), 축제일 국기 게양, 총독부 의례준칙 준수, 혼상례의 간소화, 누습 타파, 근로정신 함양, 국 한 그릇 찬 하나 준수를 통한 식사 간소화 등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전시체제기 고향경의 글

- 생활개선 이것은 꼭 인격수양과 같다고 생각된다. 모든 밖으로 오는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인식과 자각과 결심에서 나의 생활을 바로잡으려면 참말 개선이 되는 것이다.”

고향경, ‘조선여자생활개선책’ 《조광》 1940년 5월, 166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일제 말기 고향경의 친일 협력

- ‘애국금차회’ 활동
 - 국방비 헌납을 위한 전쟁협력단체
 - 친일관료 윤덕영의 부인 김복완 등에 의해 조직
 - 장신구 헌납, 군인환송연과 위문 등
 - 1937년 9월 20일 첫 간사회



애국금차회

[출처04] 《매일신보》 1937년 9월 22일자 6면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일제 말기 고향경의 친일 협력

-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활동
- 시국 논설 발표 등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학습정리

- 고향경의 경성자매원 설립과 운영 과정 및 일제 말기 친일 협력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6차시 고향경의 사회사업



다음 차시에서는

- 고향경의 정치 참여

SOURCES



[출처01] 《조광》 1938년 1월, 56쪽

[출처02] 《조광》 1938년 1월, 58쪽

[출처03] 《조선일보》 1939년 6월 8일자 4면

[출처04] 《매일신보》 1937년 9월 22일자 6면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